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D-30... 준비 만전

### 전북자치도, 대회 주요시설 순회로 현장 체제 돌입 대운동장에 건립 기업전시관, 기본 골조공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현장 체제로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북대학교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시설 순회로 대회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가 치러질 전북대학교 일원의 시설 현황 위주로 점검하였으며, 본격적인 조성이 시작된 기업전시관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설치되는 기업전시관은 기본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전시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이 진행됐다.

30일까지 준비된 일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이뤄지며, 10월 1일부터는 전기, 통신, 냉난방기, 소화기, 보조 발전시설, 야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거쳐 10월 15일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 구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매주 단위로 시설 구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시관 구축을 마치는 대로 대회 전까지 리허설 등을 통해 반복적인 시설 점검을 거치게 되며, 실내 전시장과 다름없는 공간을 구성해 참가기업과 관람객들의 참여와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약 290개 부스 규모로 조성되는 기업

전시관은 도내기업을 비롯해 도외 기업, 기관 부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분야별·업종별 기업들의 다양한 전시가 진행된다.

도내에 소재한 대기업 등의 야외 전시도 병행된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전기 트럭과 수소전기버스, 연료전지 제품 등을, HD현대인프라코어는 소형 건설기계, KGM카머셜은 저상 전기버스, LS엔트론에서는 자율작업 트랙터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특장차협회가 전시에 참여해 캡핑용 자동차, 초소형 전기 소방차 등의 특장차도 전시된다.

이 밖에도, 14개 시군 홍보부스가 조성돼 시군의 대표 산업 소개와 함께, 특화 품목 등도 소개된다.

대운동장과 인접한 소운동장에서는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준비 중이다.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여는 K-드론'을 주제로 지식정책 포럼, 드론 축구대회,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 등이 개최되며, 드론 월드컵 홍보관과 체험관, 기업전시관이 운영된다.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연인원 400명이 10개 분야에 투입되며,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게 된다.

교통과 수송을 담당할 현장상황실이 운영되며, 주요 역과 터미널, 호텔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와 행사장 순환 버스를 운영하고, 행사장 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23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 상황 및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반의 교통질서 유지와 주차장 지도 관리 등을 위한 교통관리소도 운영되게 된다.

대회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되며, 안전 분야 전문을 통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대응팀 구성을 통한 현장 상황 유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방, 의료·보건, 위생점검, 환경경비 등 대회 참가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전북을 찾는 재외동포들을 위해 대

회 공식 홈페이지에 호텔뿐만 아니라 한옥 스테이 등 다양한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

특히 대회기간 중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 등 위생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에는 도시사 현장 집무실과 사무실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내부 시설 정비도 이뤄지고 있으며, 대회가 임박 해오는 만큼 10월 초에는 조성을 완료하고 현장 준비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밖에, 지니 포럼, 일자리 페스티벌, 창업 대전, 투자유치설명회 등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도 추진되며, 개폐회식을 비롯해 각종 만찬 행사, 행사장과 한옥마을 일원 등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짐 점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많은 국내외 경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국내 조사료 생산 핵심지역 자리매김

### 도, 내년 전문단지 가공시설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조사료 생산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 공모에서 완주군 우리영농조합(260ha)과 고창군 중우축산영농조합(219ha)이 조사료 전문단지로, 김제시 전주김제완주축협이 가공시설 부문에 각각 선정돼, 총 76억 1,800만원(국비 33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로 선정된 두 곳(479ha)을 포함해, 전북은 총 19개소, 9,380ha 규모의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를 운영하게 됐으며, 이는 도내 전체 조사료 재배면적의 약 30%를 차지한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조사료 재배지역의 규모화와 집단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 및 퇴·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일반 재배지보다 국비 보조비율이 10~20%가 높아 지방비와 자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는 기존 가공시설을 보완해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한 고품질 TMR 사료 축산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촉진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사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가공·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져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6일간의 인권 여정 '막 오르다'

### 전북자치도, 세계인권선언 76주년 기념 '인권문화축제' 개막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문화축제'의 막을 올리며 6일간의 인권 여정을 시작했다. <관련사진 3면>

이번 축제는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기념해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권 행사로 구성됐으며,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주제로 도내 전역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은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열렸으며, '오케스트라 위더스

(WITHUS)'의 감동적인 연주와 '얼씨구 모자이크 국악단'의 흥겨운 국악 공연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의 개회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의 축사 등이 이어

지며,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특히 개막식 하이라이트로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인권변호사의 강연이 있었다. '지혜, 용기, 절제를 아우르는 인권'이라는 주

제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박 변호사가 겪은 인권 사건들을 바탕으로 도민들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도민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도민들의 인권감수성을 한층

높이는 기회가 마련됐다.

23일부터 24일까지 도청 야외광장에서는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인권 홍보 부스가 운영되며, 인권퀴즈, 인권작품 전시, 장애인 인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전북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단편영화와 UCC, 웹툰 작품들도 전시되어 도민들이 인권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축제는 28일까지 이어지며, 여성인권 투어, 청소년 인권 골든벨, 여성장애인 합창단 공연, 인권역사현장기행 등 다채로운 인권 관련 행사가 도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인권문화축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권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도민과 함께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